

현안과 과제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 세계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요 약

□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 세계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세계를 이끄는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시작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 교환의 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위기 해법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다보스 포럼의 주요 논제는 이후 G8,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제 44회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주제 하에 1월 22~25일 개최될 예정으로, 위기 이후 심화된 글로벌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재편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다보스가 본 2014년 세계 경제

2014년 세계는 경제의 회복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으나, 미국·유럽발 리스크 지속, 불균형의 확대, 지구촌 사회 혼란 심화 및 자연재해의 전방위적 타격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14년 다보스의 대안: 세계의 재편

다보스 포럼은 2014년 세계의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재편이란, 위기 이후 심화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인지·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보스가 주목한 세계의 5대 리스크와 5대 변화를 보면, 5대 리스크는 국가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 변화 심화 및 사이버 위협 확대이다. 5대 변화 요인은 초연결 사회의 도래, 수직적 의사 결정의 네트워크화된 수평화,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 및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이다.

다보스는 이러한 리스크와 변화 요인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포괄적 성장의 성취', '미래 성장을 위한 파괴적 혁신',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90억 명의 지속 가능한 세계'로 세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다보스는 세계가 '불균형 축소 노력, 파괴적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재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외 위협 요인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방안 구축, 불균형 축소, 제조업 혁신 지속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세계를 이끄는 다보스 포럼

- (다보스 포럼의 개념) 1971년 이후 세계 경제의 현안 등을 논의해 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위기 해법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場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보스 포럼의 성과) 매년 1월 열리는 다보스의 포럼의 주요 논제는 G8,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다보스 포럼에서 G8 및 G20 정치 지도자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안에 대해 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교류하고 그 해 G7, G20 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있음

< 다보스 포럼과 G8·G20 주요의제 >

구분	다보스 포럼의 대안	G8 주요 의제	G20 주요 의제
2009 (39회)	- 위기이후의 세계(Shaping the Post-Oris World) · 국제적 협력 · 효율적인 거버넌스 · 기업가 정신과 혁신 · 금융보호주의 · 세계경제 새 질서	- 보호주의 저지 - DDA 협상 - 에너지/기후변화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공조 방안 - 보호주의 저지 - 출구전략 공조확인
2010 (40회)	- 더 나은 세계(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금융개혁 입력 · 신중한 세계경제 낙관론 · 글로벌 리더십 변화 · 기후변화	- 핵 비확산 및 군축 - 안보취약 요인 점검 - UN새천년개발 목표 이행 점검	-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 글로벌 금융안전망 - 금융부분 개혁규제
2011 (41회)	- 새로운 현실 (New Reality) · 무역불균형 ·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 회복 격차 심화 · 노령화 · 자원부족 · 기술혁신	- 이슬람의 민주화 - 사회변화에 관심 - 인터넷 거버넌스	- 거시경제 공조를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 중장적 성장 반 강화 - 대형금융 판 규제 마련
2012 (42회)	- 대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신모델 형성 · 4가지 모델: 성장과 고용, 리더십과 혁신 · 지속가능성과 자원 및 사회·기술적 모델	- 유로존 위기 해법 - 북한 등 국제 안보 - 에너지/기후변화	-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 - 다자무역체계 강화 - 노동시장 개혁
2013 (43회)	- 유연한 역동성 (Resilient Dynamism) · 글로벌 시스템 재정비 · 유연성과 민첩성 · 역동적인 지도자	- 조세피난처 논의 -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 아베노믹스의 영향	- 거시경제정책 공조 - 일자리 창출 - 장기투자재원의 조성

자료 : 각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

주 : G20 정상회의는 2009~2010년까지 1년에 2차례 개최된 바, 두 회의의 가장 중요 의제를 정리.

- (2014년 제 44회 다보스 포럼) ‘세계의 재편(Reshaping of the world)’이라는 주제 하에 세계 경제 리스크의 지속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변화(Transformation)와 사회·경제·정치 분야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
 - 제 44회 다보스 포럼이 오는 1월 22일~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 토론 의장에 알리코 단코테 나이지리아 단코테 그룹 회장, 크리스 코팔라크리슈난 인도 인포시스 부회장 등이 내정되면서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짐
 - 금번 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전세계 지도자와 국제기구 수장 250명과 기업 대표 등이 약 2,500명이 참석할 예정
 - 금번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성취’, ‘미래 성장을 위한 파괴적 혁신’ 등에 대해 논의
 - WEF가 2014년 글로벌 아젠다 1~3위로 선택한 중동, 북아프리카의 사회적 긴장 고조, 소득 불균형 확대, 지속되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성장의 성취’ 등이 금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됨
 - 한편, WEF는 주요 지역에서 글로벌 아젠다로 선정된 이슈 이외에 아시아 중산층의 확대, 메가시티의 중요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변화 요인에도 관심을 나타냄

< 44회 다보스 포럼의 의제 및 참여인사 >

구분	의제 및 참여인사
의제 및 논의 내용	- 세계의 재편(Reshaping of the world):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영향 · ‘포괄적 성장’의 성취 · 파괴적 혁신의 포용 · 사회 내 새로운 기대들과의 조우 · 90억 명의 지속가능한 세계
주요 참여인사	- 알리코 단코테 단코테 그룹 회장(나이지리아) - 크리스 코팔라크리슈난 인도 인포시스 부회장 - 장셴칭 중국 공상은행 은행장 - 주디스 로딘 록펠러 재단 회장 -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외

자료 : WEF.

< 2014년 글로벌 아젠다 TOP 10 >

순위	글로벌 아젠다
1	중동, 북아프리카(MENA)의 사회적 긴장 고조
2	소득 불균형 확대
3	지속되는 구조적 실업
4	사이버 위협의 심화
5	기후 변화에 대한 무대책
6	경제 정책에 있어 자신감 상실
7	리더십의 가치 부족
8	아시아 중산층의 확대
9	메가시티의 중요성 증대
10	온라인 오보의 빠른 확산

자료 : WEF,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4.'

주 : 1~10위의 순위임.

2. 다보스가 본 2014년 세계 경제

① 세계 경제의 회복 가시화

○ (회복되는 세계 경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4년 세계 경제는 2011년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경제 성장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1%대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미국, 유럽 등의 경제 회복으로 2%대를 기록할 전망

· 미국: 양적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셰일 가스 개발, 제조업 부흥 정책 등으로 소비, 실업 등 내수 경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가의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위기 국가들의 경제도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임

- 선진국 경제권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2012년 이후 4%대의 성장에 그쳤던 신흥국의 경제 성장도 5%대로 개선

· 다만, 신흥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는 2013년 7.6% 성장에서 2014년 7.3%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임

- 대폭 증가됐던 재정적자 규모도 축소,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긴축정책을 지속했던 유로존의 재정수지 적자가 2011년 GDP대비 -4.2%에서 2014년 -2.5%로 낮아지고, 미국도 동기간 -9.5%에서 -4.7%로 개선

< 주요 경제권의 GDP성장률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선진국	1.7	1.5	1.2	2.0
미국	1.8	2.8	1.6	2.6
일본	-0.6	2.0	2.0	1.2
유로존	1.5	-0.6	-0.4	1.0
독일	3.4	0.9	0.5	1.4
이탈리아	0.4	-2.4	-1.8	0.7
스페인	0.1	-1.6	-1.3	0.2
신흥국	6.2	4.9	4.5	5.1
중국	9.3	7.7	7.6	7.3

< 주요 경제권의 재정수지 추이 >

(GDP 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미국	-9.7	-8.3	-5.8	-4.7
유로존	-4.2	-3.7	-3.1	-2.5
독일	-0.8	0.1	-0.4	-0.1
이탈리아	-3.7	-2.9	-3.2	-2.1
스페인	-9.6	-10.8	-6.7	-5.8
일본	-9.9	-10.1	-9.5	-6.8
영국	-7.8	-7.9	-6.1	-5.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
주 : 2013, 2014년은 전망치임.

자료 : IMF.
주 : 2013, 2014년은 전망치임.

② 글로벌 불확실성(Global Uncertainty) 상존

○ (글로벌 경제 리스크는 지속)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혼란, 유럽의 디플레이션 진입, 중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이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협

- 잠재 위협 요인들이 세계 경제를 재차 악화시킬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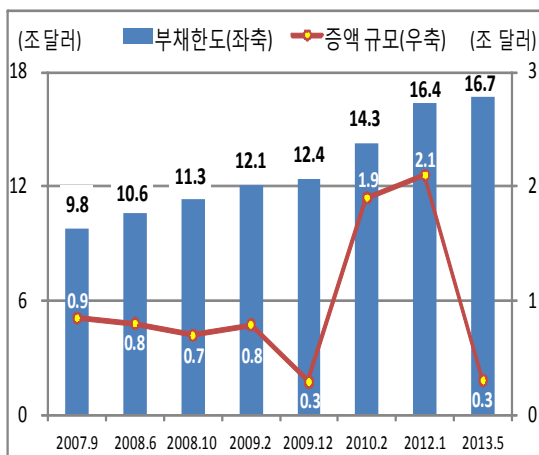
- 미국의 부채 위협: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부채한도 협상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30% 이상 늘어난 공공 및 민간부채도 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음
- 유로존의 그레이 스완: 독일, 북유럽 등 경제가 안정된 국가들과 재정위기국들 간의 성장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고, 세계 통화전쟁에 따른 유로화 가치 상승은 스페인 등 위기 국가들의 경제를 재차 하강시키고 디플레이션 우려를 높임
- 중국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경기 하강 가능성: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대두

○ (불균형의 확대) 소득 불균형 확대는 북미,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아젠다로 인식

- 선진국 경제 위기에 고액순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하며 부의 양극화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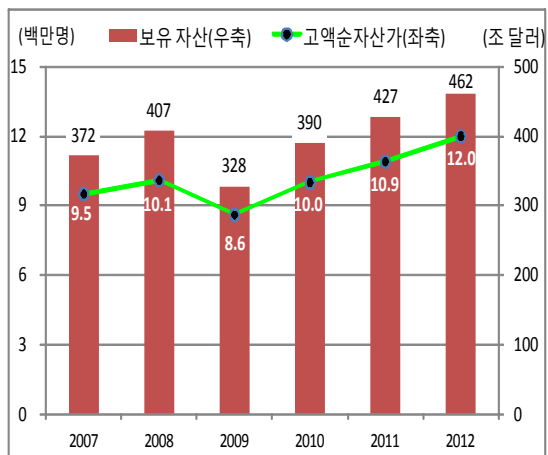
- 전세계 고액순자산가¹⁾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에 2012년말 기준 1,200만명과 462조 달러로 늘어나며 부의 집중화가 강화
- 고액순자산가 중 북미, 유럽 및 아시아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면 지역 간 양극화도 확대

< 美 정부의 부채한도 및 증액 규모 추이 >



자료 : 미국 재무부.

< 전세계 고액순자산가 규모와 보유자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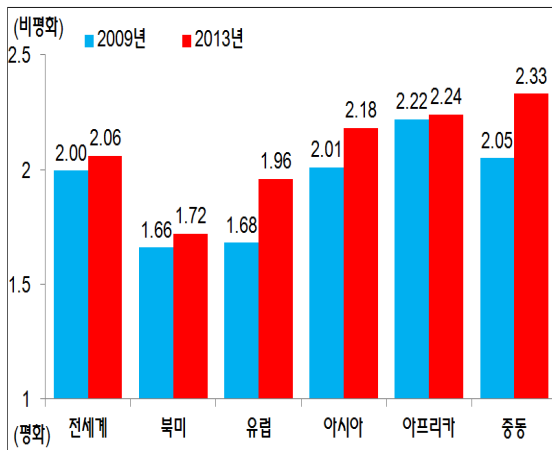


자료: Global Wealth Report, 2013.

1) 고액순자산가는 (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

- (지구촌 사회 혼란도 심화) 지역 내 및 국가 간 분쟁의 확산 등으로 지구촌의 사회 불안은 높아졌고 평화지수도 악화
 - 세계 150개국 중 43%인 65개국의 사회 혼란이 위험 수준으로 지구촌 불안 고조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세계 150개국의 사회 혼란 위험도²⁾를 분석해 본 결과,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65개국의 사회 혼란이 위험한 수준
 - 세계평화지수³⁾도 분쟁지역 확산으로 2009년 2.00에서 2013년 2.06으로 악화
 - 특히, 중동은 시리아 내전 등 군사적 충돌로, 유럽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경기 침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로 평화지수가 2009년 대비 2013년 각각 0.28씩 상승
- (자연재해의 전방위적 타격) 2013년에도 필리핀 태풍 피해, 중부 유럽 대홍수 등 880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 이변에 의한 피해 지속
 - 지구 온난화 가속에 의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880건에 달했고, 사상자 수도 2만 명으로 2012년의 1만명 대비 2배로 증가
 - 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도 1,250억 달러를 기록함

< 세계평화지수(GPI) 추이 >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
 주 : 1(평화)~4(비평화)를 의미.

< 2013년 주요 자연재해와 피해 규모 >

지역	사건	피해 규모
필리핀	태풍 하이옌	- 6,000명 사망, 390만명 이재민 발생 - 100억 달러 경제 손실
중부 유럽	대홍수	- 25명 사망 - 152억 달러 경제 손실
중국	지진	- 196명 사망 - 68억 달러 경제 손실
캐나다	홍수 얼음비	- 4명 사망, 57억 달러 손실 - 약 40만 가구 정전
이스라엘 이집트	대설	- 이스라엘 3만 가구 정전 외 - 이집트 112년만에 폭설

자료: Munich RE, 'Significant Natural Catastrophes 2013', 국내외 보도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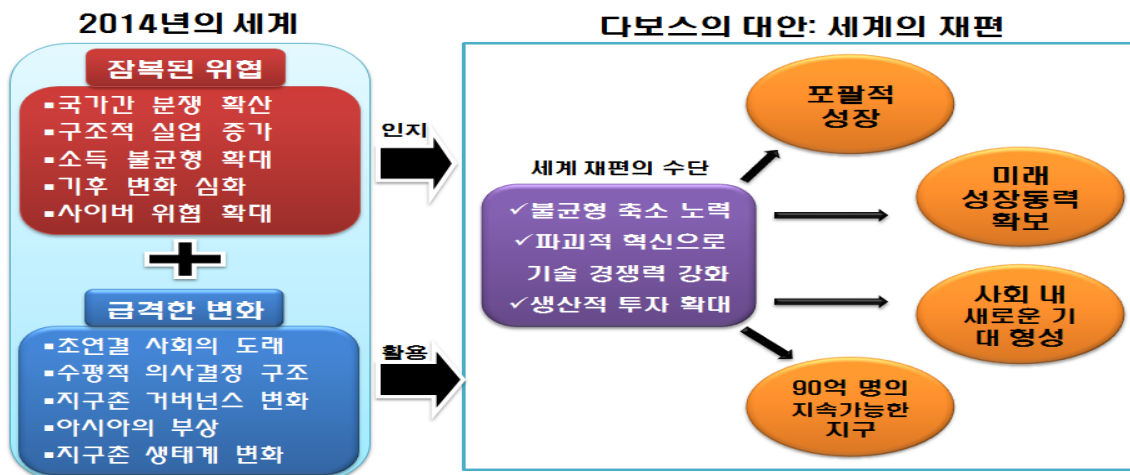
2) 사회혼란 위험도는 국가의 사회·정치적 혼란을 측정하는 지수로 현 정부나 정치적 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의 진전으로 정의되며, 0(매우 안정)~4(매우 위험)의 5가지 범주로 조사됨.
 3) 22개의 개별 지표를 고려해서 162개 국가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내 및 국제 분쟁, 사회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군사화 등을 측정.

3. 2014년 다보스의 대안

○ 핵심 의제: 세계의 재편(The Reshaping of World)

- (정의) 세계의 재편이란, 위기 이후 심화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들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조성하는 것임
- (리스크와 변화 요인) 2014년 세계는 국가간 분쟁 확산 등 잠복된 리스크와 함께 초연결 사회의 도래 등 급진적이고 동시다발적 변화들이 진행
 - 5대 리스크: 국가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 변화 심화 및 사이버 위협 확대
 - 5대 변화: 초연결 사회⁴⁾의 도래, 수직적 의사 결정의 네트워크화된 수평화,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 및 지구 생태계도 급격히 변화
- (세계의 재편을 위한 다보스의 3대 전략) 불균형 축소 노력,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투자 확대를 통해 포괄적 성장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
 - 불균형 축소 노력: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인지, 공유 경제 등의 확산으로 포괄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파괴적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3D 프린팅,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소재 혁명, 고기술 로봇틱스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 생산적 투자 확대: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스트럭처, 교육, 그린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

< 2014년 다보스의 대안: 세계의 재편 >



자료 : 다보스 포럼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4)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의미.

○ 분야별 아젠다(Agendas)

- 세계의 재편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은 5대 분야의 아젠다와 아젠다별 논제를 제시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
 - 아젠다는 글로벌, 경제, 지역, 산업 및 비즈니스와 미래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금번 포럼의 토론 방향인 포괄적 성장, 파괴적 혁신, 새로운 사회적 기대 및 90억명의 지속가능한 세계에 대해 논의가 진행
- 특히, 고용, 제조업, 디지털 세상, 미래 성장 동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특히, 경제 아젠다에서는 미래 고용의 모습과 저성장 시대 금융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산업 아젠다에서는 최근 재조명되는 제조업과 뉴 디지털 세상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

< 5대 분야별 아젠다와 주요 토론 주제 >

5대 분야	아젠다(Agenda)별 논제	주요 토론 주제
글로벌 아젠다 (The Global Agenda)	-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확대 - 다자간 무역 - 2015년 이후 성장 아젠다 발굴	- 지구 온난화의 영향 - 글로벌화 재편, 국제무역의 새 규칙 - 창조 경제
경제 아젠다 (The Economic Agenda)	- 구조적 실업, 소득 불균형 확대 등 경제 리스크를 인식 - 저성장 시대, 금융 규제와 금융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결과 논의	- 사회, 경제 및 기술적 힘을 통한 고용의 재형성 - 고용 방정식 풀기 - 금융 정책의 미래
지역적 아젠다 (The Regional Agenda)	- 더 나은 세상 조성 - 지역의 사회·정치적 변화 논의 - 새로운 행동가, 정책 및 구조에 관심	- 아시아: 중국의 부상 - 남미: 균형 성장 - 중동: 평화 계획 - 아프리카: 포괄적 성장, 부패와의 전쟁
산업 아젠다 (The Industry and Business Agenda)	-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에 대비	- 뉴 디지털 세상 - 신 제조업, 최첨단 제조업 - 슈퍼 사이클의 종말
미래 아젠다 (The Future Agenda)	- 중요한 문제(Big Question) - 새로운 우주 경쟁 - 미래 전망(Mapping the future)	- 바이오 기술, 세일 가스 등의 미래 - 데이터 면역체계, 디지털 네이티브 ¹⁾ 등 - 로봇 혁명

자료 : WEF, 2014년 다보스 포럼의 프로그램 요약을 재정리.

주 :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기기를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를 지칭.

4. 시사점

- 2014년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 잠복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재편에 대비하자고 제시
 - 2014년 세계는 국가 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등이 위협 요인이 되나 기술 혁신과 디지털 세계의 발달로 경제, 사회, 정치가 빠르게 변형되고 있음. 이에 위기에 대한 인지와 새로운 변화의 활용을 통해 세계의 재편에 대비해야 함
 - 특히, 전세계 지도자들은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포괄적 성장', 지역 분쟁 확산에 따른 '글로벌 안전망'의 강화, 디지털 감시 체계에 대한 국제적 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임
- 우리나라도 국내외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방안 구축, 불균형 축소, 제조업 혁신 지속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 나가야 함
 - 첫째, 국내외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에 맞는 상황별 '위기관리 방안'을 구축
 - 둘째, 소득·세대·기업·계층 간 불균형을 축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괄적 성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확대
 - 저소득 지원, 청년·고령 인력의 고용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야 함
 - 셋째, '신 제조업', '첨단 제조업' 등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어 '한국형 제조업 진화 전략'의 마련이 시급함
 - 특히, 제조업과 ICT 간 융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미래 첨단 기술, 초연결 사회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아시아 시장의 위상도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과 진출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참고 문헌>

- 1)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013년 1월 외.
- 2) 현대경제연구원, 프랑스 G20 정상회의의 한계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2011.11월 외.
- 3) WEF, Annual Meeting 2014 Programme, Executive Summary.
- 4) WEF, Outlook on the global agenda 2014.
- 5) Capgemni Consulting 외, World Wealth report 2013.
- 6) Munich RE, Significant Natural Catastrophes 2013.
- 7) IEP, 2013 Global Peace Index(GPI) Report.

<데이터 및 보도자료>

- 미국 재무부 정부부채 데이터
(<http://www.treasurydirect.gov/govt/reports/pd/mspd/mspd.htm>)
- IMF, 세계 경제전망 데이터
- 외교부, 2009~2013년 G8 정상회의 주요 의제 보도자료